

광양시, 생애 복지 플랫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맞춤형 복지 정책 신청 가능 1:1 상담, 민원인 궁금증 해소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 등 "시민들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광양시가 복지확장을 위해 모바일 앱(App)을 개발한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양시 모바일 앱(App) 개발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관계 부서장, 용역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주요 기능 설명, 개발 일정 안내,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시 모바일 앱은 태어기부터 노년

기까지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하는 광양 시민의 특별한 복지체계인 '광양시 생애 복지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은 △개인별 맞춤형 홍보(PUSH 알림)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 및 신청 △실시간 민원 상담 채팅 △모바일 광양시민카드 발급(광양시민) △디지털 광양시민증 발급(출생인, 다른 지역 주민) △시설·강좌 통합예약 △시정참여 포인트 지급 △각종 생활 불편 신고 △주요 생활정보 안내 △설문조사 △읍면동 소식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 및 신

정'은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구성하는 360개 복지정책을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의 핵심 기능이다.

실시간 민원 상담 채팅은 일반행정, 생활민원, 복지, 세무, 교통 등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상담원과 1:1 실시간 채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시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면 △광양시 홈페이지 △구인구직플랫폼 '굿잡광양' △도서관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등 시에서 운영하는 8개 홈페이지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로그인(SSO) 기능을 마련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광양시는 모바일 앱 개발 완료 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2월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생애복지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양형 신규정책 개발과 함께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바일 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천관농협 임직원 후원 물품 기탁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천관농협 임직원 일동은 지난 11일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암마손 기초푸드뱅크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생활용품 10세트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물품은 지역사회내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추석 명절설물물 전달하여 가족과 함께 포근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했다.

평소 지역 어려운 가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관농협 조합장 김외중 외 임직원 일동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엄마손기초푸드뱅크는 지역 내 기업·개인 기부자에게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기부받아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 기부자는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엄마손기초푸드뱅크(061-864-4804)로 신청하면 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 관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득량만강진만권 주민' 대상

장흥군은 내달 1일부터 득량만강진만권(장흥, 고흥, 보성, 강진) 주민에게 관광문화시설 입장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입장료 할인이 적용되는 장흥군 시설은 정남진 전망대, 정남진 어린이과학관, 정남진 물과학관 등이다.

득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공동회장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의장)은 4개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7월 구성된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체다.

이번 입장료 감면은 지난해 정기회의 결사항에 따라 추진되었다.

감면 대상은 시설 이용 시점을 기준으로 장흥, 고흥, 보성,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이다.

장흥군과 함께 회원군인 고흥, 보성, 강진군에서도 관광문화시설 할인을 실시한다.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우주발사전망대 △고흥천문화과학관, 보성군은 △태백산맥문학관 △제암산자연휴양림 환경성질환에방관리센터 △득량만 낚시공원, 강진군은 △고려청자박물관 △다산박물관 △가우도 모노레일의 입장료를 20~100% 범위에서 감면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4년에는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군민화합 합창페스티벌과 수산종자 방류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며 "이번 입장료 감면이 4개 군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추석장사씨름대회 국화급 우승 구례군청 씨름단 이세미 선수

구례군청 씨름단 이세미 선수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세미 선수는 결승전에서 팀 동료인 엄하진 선수와 맞붙어 승리하며 데뷔 5년 만에 첫 국화장사에 등극했다.

경기 후 이세미 선수는 "5년 만의 장사라 매우 기쁘고,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장사 타이틀을 차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객들은 우승한 이세미 선수와 1년 전 같은 대회에서 당한 큰 부상을 극복하고 값진 준우승을 차지한 엄하진 선수 모두에게 열띤 함성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날 매화급 경기에서는 선채림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랐지만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구례=김상현 기자

올 하반기 장학생 모집·선발 보성군장학재단

보성군은 보성군장학재단이 지역 인재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내달 8일까지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본인 및 부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이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110명 △보급자리 65명 △한울타리 45명 △행복동지 25명 △아름드리 6명 △푸름꿈 9명 등 6개 분야로 총 2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해당 학교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구비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선발 요강에 의거 해당 학교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1차 심사를 거쳐 재단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장학금은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 관련 사항은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및 보성군장학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22일 남제동 하수시설 응급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호우대비로 피해예방... 인명·대규모 피해 없어

순천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극한 호우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풍수해 대비와 이동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명 피해와 대규모 피해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순천 지역에 20~21일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황전면 393mm를 최고로 평균 180mm의 강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일부 도로 및 농경지 침수, 나무 전도, 토사유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호우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으

며,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재난 대비를 강조했다.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극한 강우를 대비하여 오전부터 관내 상습 침수우려지역의 도로측구 빗물받이 낙엽 등 부유물을 사전 제거하였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21일 18시경 순천시 전지역에 시우량이 50mm 이상의 극한 강우가 발생하여 100여 건의 순간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다행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 피해 및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1일 늦은 밤부터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노 시장은 "극한 호우에도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시민들의 협력 덕분"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국회 토론회 개최

고흥군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문금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고흥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한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도노선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며, 고흥군 철도건설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임광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고흥 철도건설

은 가능성이 있다"며 "고흥우주선 철도가 건설되고 단계적으로 확장되면, 고흥-서울 간 이동시간이 현재 약 5시간에서 2시간 30분대로 줄어들며, 수도권, 부산-울산권 및 광주권역과의 고속 교통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흥우주선 철도를 기반으로 고흥군의 국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우주 및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철도학회 사공명 회장을 좌장으로 전라남도 송광민 도로정책과장, 국가철도공단 송권 사업 기획처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철

도정책연구실장, 한국교통연구원 이호철도교통연구본부장, 고흥철도추진위원회 김승일 위원장, 고흥군 송원중 건설과장이 함께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군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경전선 목포-별교-부전역(부산) 구간 중 별교역에서 고흥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전남도와 함께 고흥우주선 철도사업 타당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2025년 4월경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열리면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